

2020년 2월 5일

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사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미 증시, 중국 경기 부양정책 기대로 상승 지속 중국 인민은행 이틀동안 1 조 7 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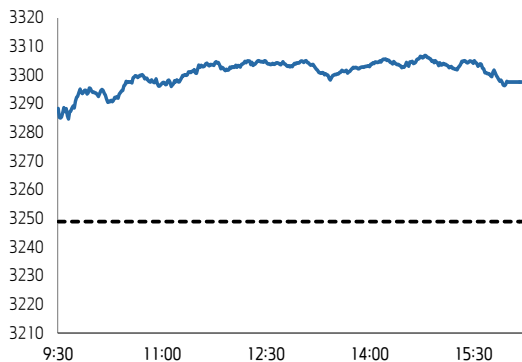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변화요인: 중국 부양정책, 커들로 발언, 미 대선

미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과 미 민주당 대선 경선을 둘러싼 혼란 등에 힘입어 상승.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이틀에 걸쳐 유동성을 공급하자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. 더불어 커들로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한 점도 긍정적. 이 결과 금융주, 소비재, 기술주와 더불어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 주도(다우 +1.44%, 나스닥 +2.10%, S&P500 +1.50%, 러셀 2000 +1.50%)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으나, 중국 인민은행이 이틀에 걸쳐 1 조 7 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. 여기에 20 일 있을 대출금리 결정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투자심리는 개선. 특히 이번 감염증으로 중국 소비 및 글로벌 공급망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관련 우려가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. 이 결과 최근 감염증 확산으로 약세를 보여 왔던 반도체 및 물류, 소비재 업종이 강세. 이와 함께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“감염증 여파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가 차질을 보일 수 있으나 전 업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” 라고 주장. 특히 커들로는 “반도체 업종은 영향이 없을 것이며, 자동차와 부품은 중간 정도에 그칠 것” 이라고 주장 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미국 경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.

한편, 미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앞두고 아이오와주 경선이 있었으나, 기술적인 문제로 발표가 지연. 이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의 내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. 이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 경선에서 혼란이 야기되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55.8%로 크게 상승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. 여기에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49%로 당선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. 이 결과가 알려지자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. 한편, 강력한 민주당 후보 중 한명이 조 바이든은 아이오와 경선에서 4 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자 민주당 후보 지명 가능성이 큰 쪽으로 하향 조정(전일 대비 -11.4%)된 19.6%로 발표된 점도 특징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	지수동락률(%)	Close	D-1	지수	지수동락률(%)	Close	D-1
KOSPI		2,157.90	+1.84	홍콩항셱		26,675.98	+1.21
KOSDAQ		661.24	+2.22	영국		7,439.82	+1.55
DOW		28,807.63	+1.44	독일		13,281.74	+1.81
NASDAQ		9,467.97	+2.10	프랑스		5,935.05	+1.76
S&P 500		3,297.59	+1.50	스페인		9,562.90	+1.68
상하이종합		2,783.29	+1.34	그리스		916.75	+1.47
일본		23,084.59	+0.49	이탈리아		23,844.85	+1.64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+3.12%

테슬라(+13.73%)는 테슬라 주주중 하나인 론 바론이 향후 10년안에 테슬라의 매출이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 강세를 보였고, 숏커버링까지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. AMAT(+5.51%)은 도이체방크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급등했다. 램리서치(+5.50%) 등도 동반 상승했다. 마이크론(+3.20%), 퀄컴(+2.83%) 등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은 커들로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강세를 보였다.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.12% 상승했다.

애플(+3.30%)은 물론 원 리조트(+3.20%) 등 카지노 업체와 나이키(+2.13%) 등 신발업체, 갭(+2.06%), L브랜드(+6.11%) 등 의류업체 등은 중국 경기 부양정책에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. 델타항공(+3.37%) 등 항공주와 GM(+1.93%) 등 자동차 업종은 국제유가가 50달러 내외 등락을 이어가자 강세를 보였다. 유나이티드헬스(+2.49%), 휴마나(+3.06%) 등 헬스케어 업종과 바이오젠(+3.87%), 암젠(+2.27%) 버텍스(+3.97%)은 민주당 대선 경선 혼란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세를 보였다. 반면, 알파벳(-2.51%), 코노코필립스(-4.55%)는 부진한 실적 발표 후 하락했다.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(XOP)	+0.37%	대형 가치주 ETF(IVE)	+1.22%
에너지섹터 ETF(OIH)	+1.93%	중형 가치주 ETF(IWS)	+1.04%
소매업체 ETF(XRT)	+0.85%	소형 가치주 ETF(IWN)	+1.11%
금융섹터 ETF(XLF)	+0.96%	대형 성장주 ETF(VUG)	+1.98%
기술섹터 ETF(XLK)	+2.62%	중형 성장주 ETF(IWP)	+1.86%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+2.76%	소형 성장주 ETF(IWO)	+1.81%
인터넷업체 ETF(FDN)	+2.09%	배당주 ETF(DVY)	+1.06%
리츠업체 ETF(XLRE)	+1.30%	신중국 고배당 ETF(DEM)	+2.16%
주택건설업체 ETF(XHB)	+0.47%	신중국 저변동성 ETF(EEMV)	+1.74%
바이오섹터 ETF(IBB)	+2.39%	미국 국채 ETF(IEF)	-0.58%
헬스케어 ETF(XLV)	+1.76%	하이일드 ETF(JNK)	+0.62%
곡물 ETF(DBA)	+0.13%	물가연동채 ETF(TIP)	-0.43%
반도체 ETF(SMH)	+3.22%	Long/short ETF(BTAL)	-1.50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400.81	+0.20%	-4.48%	-13.31%
소재	376.17	+1.74%	+1.39%	+0.80%
산업재	696.42	+1.84%	+0.10%	-0.37%
경기소비재	1,015.54	+1.76%	+3.08%	+2.15%
필수소비재	651.73	+0.55%	-0.06%	+1.50%
헬스케어	1,184.41	+1.70%	-0.46%	-0.24%
금융	505.25	+1.04%	+0.67%	-0.98%
IT	1,740.06	+2.60%	+2.24%	+6.99%
커뮤니케이션	186.46	+0.70%	-0.54%	+0.66%
유틸리티	347.61	-1.03%	+0.04%	+6.96%
부동산	246.84	+1.19%	-0.42%	+3.17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상승 지속 기대

MSCI 한국 지수 ETF 는 2.83% MSCI 신흥 지수 ETF 는 2.58% 상승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82 계약 순매도 한 가운데 2.65pt 상승한 294.05pt 로 마감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83.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미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. 특히 커틀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고 주장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언급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.12% 급등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.

여기에 전일 한국 증시 강세 요인이었던 중국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심리 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.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20 일 있을 대출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는 물론 기준을 인하 더불어 증치세 환급률 상향 조정, 개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개편 또한 기대하고 있다. 한편, 트럼프는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더 나아가 미-중, 미-EU 무역협상, USMCA, 북한 관련 언급 등도 예상되고 있다.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호적이다.

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있고,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버니 샌더스가 지명 받을 확률이 39.5%로 상승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. 여기에 테슬라(+13.73%)가 전일 20% 급등에 이어 오늘도 장중 한때 24% 넘게 급등세를 이어갔으나, 장마감을 앞두고 상승분을 급격하게 반납한 점도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.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미국 공장 주문 증가

12 월 미국 공장주문은 전월 대비 1.8%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(mom +1.3%)은 물론 지난달 발표 수치(mom -1.2%)를 상회했다. 한편, 운송을 제외한 수주는 전월 대비 0.6% 증가했으나, 국방을 제외한 수주는 0.6% 감소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국제유가(WTI) 수요 부진 우려로 50 달러 하회

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수요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50 달러를 하회했다. BP 등 일부 원유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하루 30~50 만 배럴 소비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. 이런 가운데 OPEC 이 2월 회의를 개최해 시장 예상치인 하루 50만 배럴 감산 보다 많은 80~100만 배럴 감산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.

달러화는 이틀 연속 안전자산인 엔화 및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. 더불어 미 민주당 대선 경선이 혼란을 야기된 점도 달러 강세 영향 중 하나였다. 호주 달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호주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, 역외 위안화 환율도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정책에 기대 달러 대비 0.3% 강세를 보였다.

국채금리는 공장주문(mom +1.8%) 개선과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했다. 한편,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혼란을 일으키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(55.8%)도 정치 불확실성을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 요인중 하나였다. 한편, 트럼프의 국정연설(한국시각 오전 11시)을 앞두고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 기대 또한 상승 요인이었다.

금은 달러 강세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했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및 달러 강세와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돌하며 혼조양상을 보였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.56% 하락했으나, 철근은 1.63% 상승했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49.61	-1.00	-7.24	Dollar Index	97.954	+0.16	-0.07
브렌트유	53.96	-0.90	-8.25	EUR/USD	1.1045	-0.14	+0.21
금	1,555.50	-1.70	-1.29	USD/JPY	109.52	+0.76	+0.34
은	17.561	-0.62	+0.59	GBP/USD	1.3030	+0.27	+0.02
알루미늄	1,686.00	-0.03	-3.77	USD/CHF	0.9693	+0.35	-0.39
전기동	5,618.00	+1.68	-1.49	AUD/USD	0.6738	+0.69	-0.35
아연	2,166.50	+0.96	-2.85	USD/CAD	1.3282	-0.03	+0.97
옥수수	382.25	+0.92	-1.10	USD/BRL	4.2543	+0.18	+1.53
밀	557.25	+0.32	-2.19	USD/CNH	6.9903	-0.34	+0.35
대두	879.50	+0.29	-1.73	USD/KRW	1187.40	-0.64	+0.91
커피	98.15	+0.26	-6.57	USD/KRW NDF1M	1183.60	-0.58	+0.70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1.599	+7.19	-5.71	스페인	0.266	+2.70	-4.70
한국	1.632	+7.70	+3.10	포르투갈	0.306	+3.60	-2.90
일본	-0.047	+1.00	-0.80	그리스	1.160	-2.00	-1.50
독일	-0.399	+4.30	-5.80	이탈리아	0.949	0.00	-8.10